

“2년 계약 입주했는데 8년 의무?” 임대아파트 주민들 ‘한숨’

임대건설사 “당시 직원이 잘못 안내... 다른 세입자 구해야” 답변만 계약서에 의무임대자 동체... “설명 의무 위반, 단 문서 효력 있어”

“2년 임대계약”이라고 듣고 입주했는데, 직원이 잘못 안내했다며 8년 의무임대에 세입자를 구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100명도 넘습니다.”

광주 광산구 49형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A(34)씨는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2년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임대 건설사로부터 ‘8년 의무임대’와 ‘다른 세입자 대

체’ 등의 답변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200세대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에 120여명이 같은 입장이자 보니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31일 A씨에 따르면 임대계약서 상 임대기간은 2021년 12월3일부터 2023년 12월 2일까지이며, 입주 지정기간도 동일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아파트의 설명과 함께 임대

무기간 8년과 4년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고, 계약서 상 자필이 아닌 부동문자로 8년에 체크돼 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입주 당시 설명에서 2년 임대계약 갱신으로 이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물론, 임대 의무가 아닌 연장으로 최대 8년까지 임대 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임대 의무기간 8년과 4년 중 선택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때문에 자필로 체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대 만료일이 다가와 임대 건설사에 만료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해당 임대건설사는 “이전에 설명했던 직원이 잘못 안내했다. 8년 의무임대기간이다”고만 답변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124명에 달한다.

최근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 같은 사실을 호소하는 단톡방이 개설됐다는 안내글을 보고 124명이 모인 단톡방에 들어갔다.

이들 대부분은 ‘직원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이들 중에는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당시 ‘2년 임대계약 만료 가능에 8년 최장기간 임대’에 대한 설명을 담은 녹취를 가진 입주자도 있다.

단톡방에 모인 이들은 현재 국민청원·광산구청·국도교통부 등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이에 해당 임대 건설사는 의무임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임대인 모집 공고부터 8년 의무임대를 고시했던 사항이다. 당시 모델하우스 직원 이어떻게 다른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면 계약서 상 확실히 명시돼 있고 4년 임대료 동결이라는 내용을 전 세대에 확인 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장기임대를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제2

부회장은 “임대건설사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설명한 직원이 2년 후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입주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으로 오해를 발생시킨 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서에 8년 의무임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회사도 서로 의사 확인을 했다고 문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8년 의무임대 부분은 임대차계약에서 핵심 부분인 만큼 자필이나 큰 글씨 등으로 확인이 잘 돼야 하는데 부동문자로 체크가 돼 있다면 확인이 어렵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복기자



5-18기념재단이 31일 오전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책임, 주체에 대한 시민 참여 공론화를 제안했다. /김애리 기자

‘오월 현안’ 시민들과 논의하는 장 열릴까

5-18기념재단, 공법단체·시민사회 등에 제안...참석 여부는 아직

5-18기념재단이 ‘5-18 해결 5대 원칙’ 재검토와 함께 ‘2-19대국민 공동선언식’ 등으로 불거진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을 연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와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5-18기념재단은 31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오월 정신의 미래지향적 기념과 계승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시민 참여형 공론의 장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이제껏 단체 중심으로 풀려왔던 ‘5-18 해결 5대 원칙(▲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 명예 회복 ▲배·보상 ▲기념사업)’ 등 오월 현안들의 현주소를 시민들과 함께 진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안들은 보다 발전시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세부 일정은 아직이지만 첫 토론회는 6월 중으로, 개최 횟수는 최소 4회이

상으로 예정하고 있다. 토론회와 별도로 집담회와 학술행사 등은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 공법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청년세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제현들의 애정 어린 동행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단이 ‘진정한 사회’와 ‘용서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동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월정신범시민대책위원회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정확한 참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안재경 기자

“5월 마지막 날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 ‘제36회 금연의 날’...광주북구, 금연 캠페인

어르신 등 200여명에 팸플릿·손지압기 등 배부 홍보

“여든 평생 살면서 처음 알았네! 오늘이 금연의 날이야? 앞으로는 기억할게.”

31일 오전 10시께 광주 북구 우산근린체육공원,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년 5월31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위해 지난 1987년 지정, 올해로 36회를 맞았다.

북구보건소 직원들은 이날 ‘담배가 아닌 건강한 식량을 키워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흡연 예방과 금연 문화 조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팸플릿, 손지압기를 배부했다.

공원에 있는 어르신 대부분은 “금연의 날을 처음 들어본다”며 “이런 날도 있냐”고 서로를 보며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손지압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최무용(84) 할아버지는 “건강 생각해서 진작에 담배는 끊었는데 금연의 날도 있단가?”라며 “5월 마지막 날이 금연의 날인 걸 오늘 배웠는데 이쪽저쪽 다닐새는 척 좀 해야겠다”고 웃었다.

11시께는 인근 두암체육공원으로 이동해 운동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갔으며 준비한 팸플릿과 지압기 200여개가 소진되면서 캠페인도 마무리 됐다.

조현정 북구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관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금연환경 조성과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의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보건소는 오전 9시-오후 6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062-410-8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태호 기자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노조 간부 머리 다쳐

경찰도 쇠파이프 등에 어깨·손 맞아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다.

31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1분께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전국급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급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에게 다가갔고,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진압 경찰관들도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파이프 등에 맞아 어깨·손 등을 다쳤다. <사진>

경찰은 추락 위험이 있고 주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제 진압에 나섰다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고공 농성 중이었다. 경찰은 전날 농성장 에어매트 설치 작업을 방해한 한국노총 급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복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